

국립해양조사원 찾아 해양조사 현안을 점검하고 방사능 조사 직원 격려

- 박성훈 해수부 차관, 국립해양조사원 본원과 해양2000호 방문 -
- 해양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철저한 안전관리 강조

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0월 17일(화) 해양조사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을 방문했다.

먼저, 박 차관은 부산항 제5부두에 정박해 있는 ‘해양2000호’를 찾아 북태평양 후쿠시마 방사능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돌아온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, 방사능 조사 시 특별히 안전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.

다음으로, 부산 영도구에 있는 국립해양조사원 본원을 방문하여 친환경 하이브리드(Hybrid) 해양조사선(4,000톤급) 건조와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 재난 발생에 대비한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현황을 보고 받고,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.

박 차관은 “국립해양조사원은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해양관측, 수로측량, 해도제작 등 해양조사를 담당해온 명실상부한 종합해양정보 국가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”라며, “해양강국을 실현하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으로 지속해서 해양조사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.”라고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도과	책임자	과 장	임채호 (044-200-53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권 (044-200-5357)
	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윤경 (051-400-4101)
		담당자	서기관	박희윤 (051-400-4120)